

외국인유학생선교부
한국문화 체험행사

세계의 친구들, 복음의 소망

지난 5월 9일 토요일, 해외선교위원회 외국인 유학생 선교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올림픽 공원에서 가졌습니다.

아침 10시 30분, 한성백제역 2번 출구로 하나둘씩 모여드는 학생들은 내 학생이 언제 오나 하며 기다리고 계시던 선생님들을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이번 봄학기에 새로 시작한 반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만남이 더욱 반갑고 특별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소마 미술관으로 이동한 우리는 "그림책이 살아있다"라는 주제의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림책 원화도 감상하고, 등장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든 다양한 디지털체험도 하다 보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로 행복해졌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점심식사를 위해 박물관을 나온 우리는 그늘 아래 돛자리를 펴고 반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시락과 푸짐한 간식에 맛있게 먹는 모습도, 서툰 한국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모두 즐겁게만 보였습니다. 어느덧 식사시간이 끝나고 공원의 아름다움도 느껴보고 단체 게임도 하기 위해서 나홀로 나무까지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평화의 문"은 보수 중이어서 접근하지 못했지만, 88 올림픽 참가국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영광의 벽"을 지나며 새겨져 있는 이름들의 의미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수를 지나 조금은 가파른 몽촌토성길을 오르니, 구름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피크닉도 하며 푸르른 오월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A, B, C 세조로 나뉘어 나 홀로 나무 잔디광장에서 진

행되었는데, 첫 번째 미션은 "몸으로 한글 만들기"였습니다. 가장 많은 획의 글자를 만드는 팀이 이기는 미션으로, 학생들은 잔디에 누워 '떡볶이', '할', '꿀' 등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술래를 향해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해 결정적인 순간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는 학생들이 웃음과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게임에서는 노래에 맞추어 춤추다 헤쳐 모이며, 끝까지 살아남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학생들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에 기증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실크스카프 상품을 고르는 시간은 게임 못지않게 설레고 흥분되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맘껏 멋을 낸 스카프를 휘날리며, 우리는 토성 위 산책로를 따라 마지막 티타임을 가지기 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인조잔디 그늘 아래 냉음료로 더위를 식히려 모여 앉은 우리들은 오전보다 조금은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위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들.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80년대를 살아냈던 우리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한국이 이룬 성공을 선망하며 이 땅을 찾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전에 한국인 유학생 중 많은 이들이 선진국에 유학 가서 크리스천이 되어 한국에 돌아온 것처럼 이들도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길 바라며 이땅에 온 나그네의 한 영혼이라도 섬긴다는 귀한 사명감으로 선생님 한분 한분이 선교인이 되어 선하신 하나님 인도 아래 더 큰 복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이는 우리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김애리 권사 / 외국인유학생선교부

